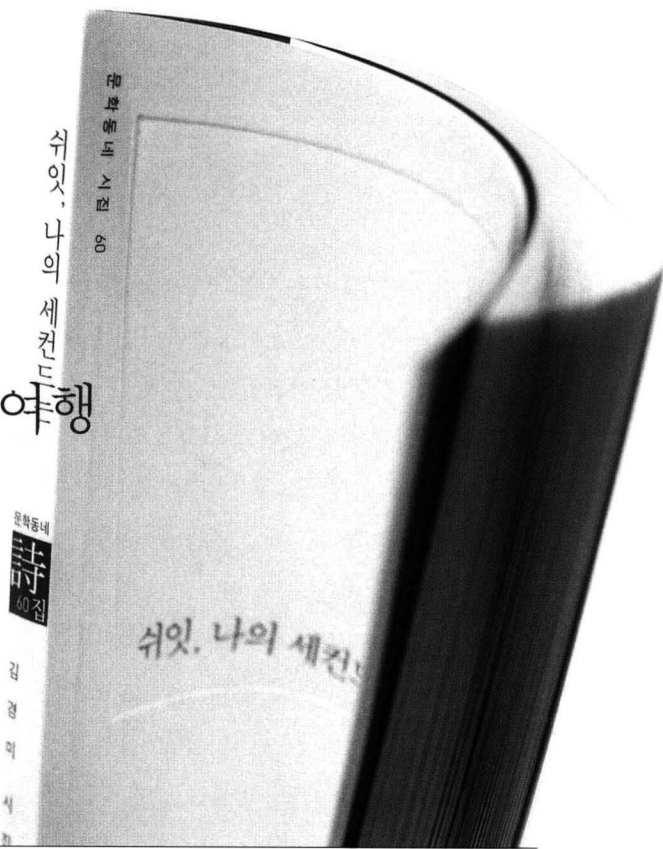


‘생의 본체’를 탐색해 나가는 환멸의 여행

오형석_월간 <coffee> 기자

《쉬잇, 나의 세컨드는》
김경미 지음 | 문학동네 | 144쪽 | 값 5,000원



고백하건대, 내가 훑쳐본 비망록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김경미의 첫 시집 《쓰다만 편지인들 다시 못 쓰랴》였다. 1983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인 〈비망록〉을 기억하는 사람들 모두는 그 시가 베풀어준 말간 감성의 행복한 수혜자들이다. ‘절벽엔들 꽃을 못 피우랴’고 우리들의 옆구리를 마구 눌러대던 시인의 20년 후의 비망록이 궁금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비망록〉을 쓰던 이십대의 시인이 마흔에 들어서면서 내밀하게 적어놓은 삶의 이력은 어떤 것일까.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

김경미의 세 번째 시집 《쉬잇, 나의 세컨드는》이 담고 있는 삶에 대한 환멸은 안쓰러울 정도로 강렬했다. 대체 무엇이 그 맑은 감성을 이야기하던 시인에게 이토록 격렬하게 삶을 부정하게 했는지, 읽는 내내 불편했다. ‘마음에 성애가 끼어 건너편이 다 흐리다’ (〈나는 지나간다〉)며 아름답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시인의 자의식은 쓸쓸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모든 생의 유일한 흔적은 오직 혼자일 뿐이라는 것’ (〈타인, 타인들〉)이라고 말하는 시인의 뒷모습에서 횡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다.

시가 정신의 산물이고 삶의 비듬 같은 것이라면 시인은 지금 외롭거나 혹은 지쳐 있다. 시집 도처에서 허무의 질은 그림자가 페이지를 넘기고 건네준다. 20대를 마감하던

시절의 첫 시집과 40대에 막 들어서는 세 번째 시집 사이에서, 시인은 금이 갈 정도로 너무 열심히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 이제 조금 쉬고 싶다고 시인은 넌지시 말을 건넨다.

누구와도 섞이고 싶지 않은 시간, 그런
방이요, 창호지같이 제 마음에 은은해지다가
빈둥대다가 울다가
수녀들 기도 소리에 몰래 마음을 달래다가
샷된 사랑에 마음 서성이다가 그 아무도 모르는 독백같이
혼인 속 독방은 왜 자꾸 필요한지요, 아침마다
지상에 없는 주소를 들고 그녀, 평생의
반려자인 듯 복덕방 아저씨와 세상의
모든 방문들을 그녀, 자꾸만
열고 또 열어보네

- 〈기혼의 독방〉 중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치이고, 갈등하며 사는 것은 시인 혼자만의 몫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삶 속 어딘가에서 자꾸 부서지는 슬픔을 보고도 그 길을 끝끝내 찾아가려는 과정이 시인이 지닌 미덕이다. 시인은, 부정하고 싶지만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자신을 일으켜 세워 이제 세상의 기울어진 한 곳에서 있으려 하는 것 같다. 삶을 견뎌내기 위해 스스로를 '세컨드'라고 이름 붙인다. 이때의 '세컨드'는 물질과 육체의 소유 관계에서 풍기는 비릿한 냄새가 아니라 정신의 구제책일 뿐이다.

'첫 번째가 아닌, 순수하게 수학적인, 세컨드, 그러니까 이번, 이 아니라 늘 다음, 인 언제나 나중, 인 홍길동 같은 서자, 인 변방, 인 부적합, 인 그러니까 결국 꼴찌,' (<나는야 세컨드 1>)인 세컨드란 이제 삶의 나중을 살겠다는 시인의 의지로 읽힌다. 누구나 중심과 '퍼스트'를 향해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가는 시절에 돌연 삶의 가장자리를 이야기하는, 이 기묘한 자리 바꾸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시집 도처에서 튀어 오르는 서술어를 살펴보면 시인의 고백이 한갓 유희나 대중성을 가장한 분탕질이 아니라는 것을 또렷이 알 수 있다.

'에인다', '흐려진다', '모르겠다', '아무것도 아니다', '떨린다', '초라하다', '서성이다', '저리다' 등 시집 전반에 걸쳐 있는 서술어들이 한결같이 지향하는 점은 모두 변방이고 주변부다. 이런 언저리 의식은 중심으로 진입하려다 실패한 사람들의 자포자기나 반발이 아니라 결국 존재라는 것은 쓸쓸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자성에서 온다. 모든 세상의 법칙과 질서에서 이젠 정말 자유로울 수 있다고 느끼는 시인의 각성이 '세컨드'라는 당당한 선언을 낳은 계기가 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각성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시인의 자의식은 삶의 가장 본질인 죽음으로까지 나아간다. '사람이 태어나면 서부터 가진 가장 확실한 한 가지'가 죽음이라는 인식은 삶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의아해하며, 때론 벗어던지기 위해 몸부림쳤을 시인의 한 시절을 절절하게 떠올리게 한다.

...그리하여
그날까지, 이곳에서의 모든 생,
세컨드, 그

첩질이게 하는, 생의 본처,
그 유일무이한, 단 하나의 영원한 언약, 배신없는
사랑, 그 영광의
퍼스트레이디,는
죽음,인 것을...

-〈나는야 세컨드 2〉 중에서
죽음을 이야기하고 허무의 포즈를 취한다고 해서 모두 환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환멸은 말 그대로 환상에서 깨어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또다시 현실로 다가서는 그때의 그 비장한 모습이 진정한 의미의 환멸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환멸은 모순이다. 환상에서 깨어 다시 환상을 불러일으켰던 현실로 들어셔야 한다니. 김경미의 세 번째 시집이 전해주는 허무와 짙은 고독이 오히려 삶에 대한 뜨거운 의지로 읽히는 것은 생의 환멸감이 어쩔 수 없이 갖는 삶의 연속성에 있다. 그렇지 않다면, 어디론가 벗어나고 싶어 혼자만의 공간을 찾던 시인의 발걸음이 결국 방문을 열어보는 데에 그치고 마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어느 날 문득, 삶에 지쳐 누더기가 다된 마음을 끌고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을 향해 가고 있는 터벅터벅 걸어가는 자신을 보았을 때 주저앉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이 시집은 치유와 각성의 시간을 선물할 것이다. 김경미의 세 번째 시집이 지니고 있는 주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래의 시가 따뜻하게 길을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시인의 이런 따뜻한 가슴이 좋다.

함박눈 못 된 진눈깨비와
목련꽃 못 된 밥풀꽃과
오지 않는 전화와 깨진 적금,
나를 지나쳐 다른 주소로 가는
그대 편지

나는 좌절하는 자세가 좋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유리창처럼 투명하게
뿌리의 세계를 들여다본 것들
마치 하늘에 엮드려 굽어보는 신 같은

-〈나는 좌절하는 것들이 좋다〉 전문 